



'25.11.28(금) / 대테러종합상황실

지역별 테러 동향

아·태

○ 韓, “학교에 폭발물 설치” 7차례 협박한 10대 구속

- 11.20 언론은 인천의 한 고등학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 글을 수차례 올려 공중협박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받는 고등학생이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되었다고 보도

○ 메타, 11월부터 호주 청소년 이용자 페이북·인스타 계정 차단

- 11.20 언론은 메타가 부모 동의와 관계없이 청소년 소셜미디어 이용을 전면 금지하는 호주 정책 시행에 맞춰, 다음 달 10일까지 호주 16세 미만 이용자의 페이스북·인스타그램·스레드 계정을 삭제할 예정이라고 보도
- ※ 호주는 페이스북, 틱톡 등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16세 미만 사용자의 접근을 차단하지 않을 시 최대 4,950만 호주달러(약 470억 원)의 벌금을 부과하는 정책 시행

○ 인도네시아, 온라인에서 극단주의 수용 후 사제폭탄 제조한 10대

- 11.20 언론은 인도네시아 고등학교 사제폭발물 테러 용의자가 텔레그램을 통해 백인우월주의를 수용·동경하여 온라인에서 폭발물 재료를 구입, 유튜브에서 제조법을 배워 폭탄을 제작했다고 보도
- ※ 印尼 경찰은 최근 1년간 온라인 게임·SNS 등을 통해 청소년 급진화를 시도하고 있는 ISIS 연계(자마 안샤룻 다울라, JAD) 조직원 5명을 검거했다고 부언

○ 韓 질병청, 생물테러 대응방안 논의

- 11.24 질병관리청은 ‘생물테러 방어전략 종합토론회’에서 국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새로운 생물테러 상황의 대응 방안을 논의했으며, 앞으로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협력 대응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발표

미 주

○ 美, 베네수엘라 카르텔 테러단체 지정…“마두로가 우두머리”

- 11.25 언론은 美 행정부가 불법 마약 반입 관여 혐의로 베네수엘라의 「카르텔 데로스 솔레스(태양의 카르텔)」를 외국 테러단체(FTO)로 공식 지정하고 「니콜라스 마두로」 대통령을 우두머리로 규정했다고 보도

○ 美 하마스 테러 희생자 유족, 자금조달 협조 책임으로 바이낸스 제소

- 11.25 팔레스타인 하마스의 테러로 희생된 피해자 유족들은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「바이낸스」를 “테러단체가 거액의 자금을 아무 제재 없이 예치·이동할 수 있도록 했다”라는 명목으로 소송을 제기

유럽

○ 이탈리아, 러시아-유럽 해저 가스관 폭파 용의자 독일에 인도 결정

- 11.20 언론은 러시아가 '22년 러시아-유럽 연결 해저 가스관 폭파 사건을 '국제적 테러'라며 수사를 재촉해 온 가운데, 이탈리아 법원이 체포된 우크라이나人 용의자를 독일에 인도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
- ※ 러시아와 함께 가스관을 건설한 독일은 폭파 공작의 총책으로 파악된 용의자를 법정에 세우기 위해 이탈리아에 범죄인 인도를 지속 요청해왔다고 부언

아프리카

○ 모잠비크, 美 원조 공백 속 ISIS 세력 확대

- 11.22 언론은 美의 USAID 지원 중단으로 모잠비크 内 빈곤·청년 실업 대응이 약화 되는 공백을 틈타 ISIS가 올해 폭력 활동을 급증시키며 과거 거점 지역을 다시 공격하는 등 세력을 확대하고 있다고 보도

○ 나이지리아, 무장괴한 납치학생 303명 중 50명 탈출

- 11.24 언론은 최근 나이지리아 카톨릭 학교에서 무장괴한들에게 납치된 학생 303명 중 50명이 탈출했으며, 나머지 학생들과 교사들은 여전히 납치범에게 붙잡혀 있는 상태라고 보도

역사속 테러사건

소말리아, 아프리카연합(AU) 호송차 겨냥 자살폭탄테러

- '21.11.25 소말리아 모가디슈에서 학교 인근을 지나가는 AU 호송차를 겨냥한 자살폭탄테러 발생, 8명이 사망하고 17명 부상(어린이 13명 포함)
 - 알카에다 연계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'알샤바브'는 사건 직후 배후를 자처, "AU 차량 행렬을 표적으로 공격하려 했다"고 주장
 - ※ 테러범은 SUV에 폭발물을 가득 실고, 호송 차량들을 충격하여 폭파하였으며, 지난 20일에는 자신들을 비판해온 유명 라디오 방송인도 살해
 - 알샤바브는 소말리아 정부 전복과 이슬람 체제 수립을 목표로 하며, 국제사회 호송대 등을 겨냥한 자살폭탄 테러는 전형적인 전술로 평가되고
 - 이후에도 정부軍·아프리카 연합군 등 대상 게릴라戰을 지속하는 한편, '외국軍 철수' 의지를 표명하며, 전투원 훈련모습 공개 등 존재감 과시
- 同 사건은 국제기구를 노린 공격이나 민간인(학생)이 피해를 입은 사건으로 소말리아 등 인접국 체류 우리국민 신변 안전활동 강화 필요

테러 단체

< 알샤바브(AS) >

- (목표·결성) 소말리아내 외세 축출 및 이슬람 신정국가 건설을 목표로 '06년 결성
 - * 테러단체 지정 : 미국('08.3), UN('10.4), EU('10)
- (주요인물) 지도자 「아흐메드 디리예」, 軍사령관 「마하드 카라테」
- (연계세력) 알카에다(AQ, AQAP, AQIM), 보코하람
- (활동지역) 소말리아 全域 및 케냐內 소말리아 접경지역
- (주요테러) '25.5 모가디슈 군기지(모집센터) 자폭 테러(군지원자 등 10명 이상 사망)
 - '25.3 히란주 호텔 총기 테러(사망 21명)
 - '17.10 모가디슈 사파리 호텔 등 차량자폭 테러(사망 276명, 부상 300여명)

